



헥터 타자 데뷔

6일 오후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MY CAR KBO리그' kt 위즈와 KIA 타이거즈 경기 8회초 2사 2.3루에서 KIA 선발 헥터가 타석에 들어서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8이닝 2실점 헥터 위력투로 7승 수확

kt전 9승 무패...깜짝 타자 데뷔 헛스윙 삼진
버나디나 역전 투런 KIA 5-2 승 3연승 질주



KIA 타이거즈 외국인 선발투수 헥터 노에시가 kt 위즈 '천적' 노릇을 토포했다.

헥터는 6일 수원케이티위즈파크에서 벌어진 2018 신한은행 행 마이카 KBO리그 kt와의 방문 경기에서 8이닝 동안 2점으로 상대 타선을 들어막았다.

4회 오태근, 5회 윤석민에게 솔로포 한 방씩을 허용했으나 4번이나 병살타를 유도한 헥터는 팀의 5-2 승리로 최

근 5연승과 함께 시즌 7승(2패)째를 거뒀다.

또 kt를 상대로 통산 9승 무패, 수원케이티위즈파크에서 6전 전승의 무패 기록을 이어갔다.

1-2로 뒤진 KIA의 7회초 공격이 승부처였다.

안타를 치고 나간 정성훈을 대신해 대주자로 투입된 최정민은 kt 선발 라이언 피어밴드의 폭투 때 2루에 간 뒤 3루를 홈쳤다.

2사 3루에서 대타 안치홍의 타구를

kt 유격수 심우준이 잘 견어냈으나 1루에 악송구한 사이 최정민이 홈을 밟아 2-2 동점을 이뤘다.

곧바로 로저 버나디나가 kt 구원 엄상백에게서 좌측 펜스를 넘어가는 투런포를 뽑았다. 버나디나는 4월 28일 kt와의 경기 이래 39일 만에 대포를 재가동했다.

단숨에 3점을 뽑아 4-2로 역전한 KIA는 8회에도 kt의 영성환 수비 덕분에 1점을 거저 얻었다.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해 3루에 간 KIA 최형우는 1사 1, 3루에서 kt 구원 심재민의 공이 포수 장성우의 미트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자 그 틈을 타 홈을 파고들어 득점을 올렸다.

타석에 있던 최정민은 번트 동작을 취

했고, 공은 그의 방향이를 맞지 않고 바로 장성우의 미트로 들어갔다 나왔다.

미트에서 튕 공이 마운드 쪽으로 굴러가자 그 틈을 최형우가 놓치지 않고 득점으로 연결했다. 포수 장성우의 패스트볼로 기록됐다.

헥터는 8회 초 헛스윙을 쓰고 타석에 들어서 색다른 볼거리를 줬다.

김기태 KIA 감독은 헥터에게 계속 마운드를 맡길 요량으로 대타 대신 헥터를 타석에 세웠고 헥터는 의외로 좋은 선구안을 선보여 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초구 스트라이크를 지켜본 헥터는 2구째 헛스윙, 3구째 파울을 기록했다. 4구에서 볼을 골라냈지만 5구째에 헛스윙으로 삼진아웃됐다.

/연합뉴스

광주체고 안세영 금빛 스매싱

전국여름철종별배드민턴 여고부 단식 우승
3학년 언니들 잇따라 꺾어...단체전 동메달

한국여자배드민턴대표팀 '고교생 돌풍'의 주역 광주체고 안세영(1년)에게 국내무대 적수는 없었다.

안세영은 6일 영암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61회 전국여름철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여고부 단식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지난해 여름철종별배드민턴에서 단복식 우승으로 여중부 2관왕에 올랐던 안세영은 올해 여고부에서도 단식 정상에 오르며 국가대표다운 기량을 과시했다. 단체전에서는 아쉽게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최연소 국가대표로 발탁된 안세영은 최근 열린 최고 권위의 배드민턴 여자 단체 국가대항전인 세계여자단체선수권에서 발군의 실력을 과시, 대표팀의 동메달 획득에 큰 역할을 했다. 세계랭킹이 490위에 불과한 안세영은 당시 세계랭킹 48위 브리트니 탐을 2-1로 꺾고 대표팀의 준결승 진출을 확정하며 실력을 입증했다.

안세영은 여름철종별대회에서도 펄펄 날았다. 여고부 단식에 나선 안세영은 첫 상대 이나원(영덕고)을 2-0(21-3 21-

10)으로 가볍게 꺾었고 김성민(범서고)에 2-1(21-12 14-21 21-10), 정인혜(성일여고)에 2-0(21-7 21-4), 김민지(성일여고)에 2-0(21-10 21-13)으로 승리했다.

준결승에서 윤선주(장곡고)를 2-0(21-11 21-4)으로 꺾고 결승에 오른 안세영은 박가은(범서고 3년)에 2-1(19-21 22-20 21-10) 승리를 거두며 금메달을 품에 안았다.

단체전에서는 아쉽게 동메달에 그쳤다. 광주체고는 4강에서 성일여고를 만나 2-3으로 패해 결승 진출이 좌절됐다. 단체전 금메달은 성일여고에게 돌아갔다.

안세영은 복식에서도 8강에서 탈락,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최진화 기자



광주체고 안세영은 6일 영암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61회 전국여름철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여고부 단식 금메달을 획득했다.

신태용호 태극전사 컨디션 관리 주력

볼리비아전 출격 월드컵 멤버 부상 '경계령'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에 나설 베스트 11을 처음 가동하는 볼리비아와의 평가전을 앞둔 태극전사들의 컨디션 관리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7일(한국시간) 밤 9시 10분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티볼리스타디움에서 남미의 '북병' 볼리비아와 평가전을 치른다.

신 감독은 볼리비아전을 앞두고 경기가 열리는 인스브루크로 예정보다 하루 빠른 6일 이동했다.

대표팀이 전지훈련 캠프를 차린 오스트리아 레오강에서 인스브루크 경기장까지 차량으로 2시간 정도 거리여서 당일 이동 때 선수들의 피로가 가중돼 최상의 경기력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볼리비아전이 월드컵에 나설 최정예 선발 라인업을 가동하는 만큼 이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가 두 차례 평가전은 물론 월드컵 조별리그 세 경기의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태극전사들은 지난달 21일 소집 후 피로 누적에다 해외파와 국내 K리그 간 신체 리듬의 불균형으로 동일한 형태의 고강도 체력훈련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손흥민(토트넘)과 기성용(스완지시티) 등 유럽파들은 시즌을 마치고 소집 전 귀국했고, 김신욱과 이재성(이상 전

북) 등 K리그와 일본, 중국에서 뛰는 선수들은 소집 전날까지 소속팀 경기를 치르는 강행군으로 피로가 많이 쌓인 상태였다.

최종 엔트리 23명으로 압축해 오스트리아로 넘어오면서 체력 불균형은 해소됐지만 5일 오후 훈련 때 서틀런(왕복달리기)을 포함한 파워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소화한 선수들은 고강도 훈련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때문에 체력훈련 당일 오후 전술 훈련은 예정보다 1시간가량 늦게 시작해야 했다.

이와 함께 볼리비아전에 나서는 태극전사들에게는 '부상 주의보'가 내려졌다.

앞서 불박이 중앙수비수였던 김민재(전북)와 신태용호 전력의 핵심이었던 미드필더 권창훈(디종), 베테랑 공격수 이근호(강원), 염기훈(수원) 등이 부상으로 낙마해 자칫 추가 부상자가 나올 경우 베스트 멤버 가동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5일 오전 훈련에서도 격렬한 몸싸움 훈련을 실시하던 중 고요한(FC서울)이 김민우(상주)와 어깨를 부딪힌 후 그라운드에서 쓰러졌다. 다행히 단순 타박으로 확인됐다.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하는 바람에 '부상 트라우마'가 생긴 신 감독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기성용도 소집 직후 허리 통증을 호소한 적이 있어 이들의 부상 예방이 경기력 유지의 과제가 됐다. /연합뉴스

조선대 농구 대학리그 25연패 탈출

신입생 배창민 더블더블 한양대 81-73 제압

조선대학교가 대학리그 25연패 수렁에서 탈출했다.

조선대는 지난 5일 조선대 체육관에서 열린 2018 KUSF 대학농구 U-리그에서 한양대를 81-73(22-14 25-9 18-26 26-24)으로 꺾고 감격스러운 승리의 기쁨을 누렸다.

지난해 16전 전패에 이어 올해 8연패 중이던 조선대는 이날 승리로 대학리그 25연패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 2016년 9월5일 상명대전 승리(62-57) 이후 638일만의 승리다.

신입생 배창민(사진)이 더블더블(21득점 11리바운드 4어시스트)을 기록한 가운데 신철민(3년)과 정주용(3년)이 각각 16득점으로 분전하며 조선대의 승리를 견인했다. /최진화 기자



'9'로 막아내고 25점을 추가하며 분위기를 잡았다.

후반은 고전했다. 3쿼터에서 18득점에 그치는 동안 한양대가 26득점을 성공시키며 추격을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조선대는 정주용과 배창민이 4쿼터에서 각각 7득점, 6득점하는 등 끝까지 리드를 지켜 홈에서 짜릿한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최진화 기자

빛고을 육상 꿈나무 한자리

광주시체육회장배 육상대회 8일 W경기장

꿈나무 선수 조기 발굴을 위한 제4회 광주시체육회장배 육상경기대회가 오는 8일 월드컵경기장 육상경기장에서 열린다.

광주시체육회와 광주시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광주시육상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올해 교육감배 육상대회와 함께 치러진다. 광주시 관내 초·중학교 학생선수 1,168명이 출전해 100m 등 60개 세부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시체육회는 이 대회를 통해 선수층을 폭넓게 확보하고 지역 엘리트 꿈나무를 조기에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소질있는 선수들의 재능과 소질을 테스트 해보는 의미 있는 대회이기도 하다.

이 대회는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을

통해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체육활동의 양·질적 향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과 학교의 명예를 걸고 출전하는 만큼 서로 간의 결속에도 기여하고 있다.

시체육회는 대회에 출전하는 학생들을 위해 광주시스포츠과학센터의 간단한 체력측정과 운동처방에 대한 체험, 또 직접 활을 쏘보는 양궁 체험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용식 시체육회 수석부회장은 "모든 운동의 기본인 육상을 활성화시켜 엘리트스포츠 지면을 넓히는 것이 목표다"며 "학생들이 육상을 통해 스포츠에 흥미를 가져 자연스럽게 선수가 배출되는 선순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진화 기자

전매게시판
우리 이웃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전자우편 : jndn@chol.com

故 人 之 冥 福 을 밍니다

<p>故 윤명호 님(74세) 강태규, 박상훈, 염경환, 강성대씨(빙부상), 8일(금) 8시, 장지:곡성군 입면 선영, 특 12분향소</p>	<p>故 노인순 님(91세) 신원식, 귀씨, 장씨, 성씨, 정씨, 남씨(모친상), 김길주씨(빙모상), 7일(목) 8시, 장지:담양 창평면 선영, VIP 장공</p>
<p>故 김형준 님(34세) 김수진, 남주, 여진씨(형제상), 7일(목) 14시, 장지:영락공원, 특실 302분향소</p>	<p>故 임삼지자 님(76세) 이구룡씨(모친상), 8일(금) 8시, 장지:영락공원, 특실 9분향소</p>

그린장례식장(주) 24시간 대기 062) 250-4455
www.그린장례식장.com

=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교인, 실버결혼, 이발, 주례서주, 묘자리 바꾸기 등 (실비에 한함) 011-9602-0001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국번없이 1366
부음 ▲조성욱씨 별세, 문신학씨(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 장모상= 화순 전남대의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8일(금) 오전 10시. 061-379-7433.